

#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과 긍정심리자본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엄주영,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 The Influence of Mindfulnes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Psychological Burnout of Middle-Aged Women

Ju-Yeong Eom, Sung-Je Ch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과 긍정심리자본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부산광역시의 중년여성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년여성이 지각한 마음 챙김 요인은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이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희망 요인만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 낙관성, 회복력 요인은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여성이 지각한 마음 챙김, 긍정심리자본의 희망 요인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심리적 소진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mindfulnes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psychological burnout of middle-aged women. The study was conducted on 125 middle-aged women who liv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an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The study found that the mindfulness factor recognized by middle-aged wome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sychological burnout. Among the sub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erceived by middle-aged women, only the hope factor influenced psychological burnout. On the other hand, other sub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optimism and resilienc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psychological burnout. These results mean that the more middle-aged women recognize mindfulnes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hope factors, the lower their psychological burnout is. This study is the basis for devising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and reduce psychological burnout among middle-aged women.

**Keywords** : Mindfulnes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ope, Psychological Burnout, Middle-Aged Women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ng-je Ch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rtjoo083@naver.com

Received September 27, 2021

Revised November 16, 2021

Accepted January 7, 2022

Published January 31,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과학과 산업화의 성장으로 사람들은 풍요속에 살아가고 있다. 반면,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일자리 문제, 경제력 약화, 대인관계의 문제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정신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빈둥지 증후군과 우울 등으로 인생의 발달단계에서 중년여성 위기와 문제는 어려움을 겪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음과 심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중년여성이란 본격적인 신체적 노화, 자녀의 성장과 독립, 경력 단절에서 오는 박탈감을 가진 갱년기 우울을 겪는 시기의 여성을 말한다[1]. 생애 발달 및 주기 이론에 의하면 중년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봄과 성취감, 걸어온 길에 대한 재평가 및 성찰하는 시기로,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전환적 시기로 40세~60세로 정의한다[2]. 또한 중년여성은 자녀의 양육에서 해운 역할의 축소에서 오는 허무감과 자녀의 성장, 독립 시기를 경험하는 여성을 의미한다[3]. 이는 중년여성의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으로 오는 불안으로 인해 가족간의 불화와 의사소통의 부재, 무가치 등으로 심리적 안정감의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중년여성을 본인의 역할 감소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리적 소진을 겪는 위기의 시기이지만 새로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생애전환기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이 겪는 심리적 소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심리적 소진이란 인간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를 회복하지 못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고갈상태라고 정의되고 있다[5].

그리고 심리적인 소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소진이 일단 생기면 점차로 정도가 심해진다는 사실이며 또한, 이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 점차로 심해지는데 중년여성들은 오랫동안 계속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긴장, 초조, 피로를 겪게 된다[6]. 이로 인해 인간관계 뿐 아니라 중년여성 자신의 정신 건강 및 심리적 안녕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년여성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열의와 기대가 있지만, 삶의 경험과 자신감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다른 발달단계의 여성들보다 심리적 소진을 더 쉽게 경험하게 된다[7]. 즉 중년여성이 불안정 애착일

수록 심리적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이 타인에게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애착불안 차원이 높고, 자신을 사랑과 지원을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이 수용되고 확신 받기를 원하므로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소모와 비인간화를 더욱 지각하며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진이 있는 중년여성에게 안정과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변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변인 중의 하나로 마음 챙김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 대하여 살펴보면,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자신의 부적절한 욕구가 개입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자신의 스트레스 반응을 좀 더 잘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9].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이 심리적 소진과 그린(목표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인내와 열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년여성의 그것에 따라 내담자의 마음의 병을 치유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10]. 또한 중년여성의 심리적 소진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는 중요한 변인은 긍정심리자본이다.

긍정심리자본이란, 중년여성이 교육, 훈련에 의한 개발 가능과 측정 가능한 조직 구성원의 심리상태를 말한다[11]. 즉 긍정적 심리자본은 삶의 만족감, 행복 및 성과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성과 향상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12]. 물리치료사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에 따른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밝히고 이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며, 중년여성의 심리적 소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중년여성 교육의 방향 설정이나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과 긍정 심리자본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사례연구와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지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심리적 소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과 심리자본에 따른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받힘으로써 중년여성의 마음의 병에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과 긍정 심리자본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중년여성의 긍정심리자본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B구 상담센터 및 복지관의 중년여성 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료 중 14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125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3문항, 마음 챙김 20문항, 긍정 심리자본 24문항, 심리적 소진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연령, 월 소득수준 등으로 구성되어 조사하였다.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을 측정하기 위해 심지은[14]이 사용한 마음 챙김의 측정 도구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중년여성의 긍정 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김병준[15]이 사용한 긍정 심리자본 측정 도구는 하위요인 자기효능감 6문항, 희망 6문항, 낙관성 6문항, 회복력 6문항 총 24문항으로 개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중년여성의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김귀숙[16]이 사용한 심리적 소진의 측정도구는 22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마음 챙김의 신뢰도 .913, 긍정심리자본 .966, 심리적 소진 .899로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 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alpha$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년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소진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년여성은 125명(10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년여성의 연령은 40대가 73명(58.4%)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47명(37.6%), 60세 이상-65세 미만이 5명(4.0%) 순으로 조사되었다. 월 소득수준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59명(47.2%), 4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가 34명(27.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27명(21.6%), 500만원 이상이 5명(4.0%) 순으로 나타났다.

###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중년여성의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주요 요인별로 살펴보면, 마음 챙김 ( $M=4.12$ )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심리자본 ( $M=4.05$ ) 순으로 모두 평균 점수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소진( $M=1.92$ ) 요인은 평균 점수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 3.3 변수 간의 상관관계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소진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마음 챙김과 긍정심리자본은 다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r=.623, p<.01$ ). 반면, 마음 챙김과 심리적 소진은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805, p<.01$ ). 한편 긍정심리자본과 심리적 소진 요인은 다소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r=.660, p<.01$ ).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Category	Mindfulnes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sychological Burnout
Mindfulness	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623**	1	
Psychological Burnout	-.805**	-.660**	1

\*\* $p<.01$

### 3.4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과 긍정심리자본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3.4.1 마음 챙김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중년여성이 지각하는 마음 챙김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는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Table 2. Effect of Mindfulness of Middle-Aged Women on Psychological Burnou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t	Significance Level
		B	Standard Deviation			
Psychological Burnout	Constant	4.918	.201		24.501***	.000
	Mindfulness	-.725	.048	-.805	-14.993***	.000

\*\*\*  $p<.001$

#### 3.4.2 긍정심리자본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중년여성이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심리적 소진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456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45.6%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578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 $F=24.909, p<.000$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희망( $\beta=-.475, p<.01$ ) 요인은 심리적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의 자기효능감( $\beta=-.210, p>.05$ ), 낙관성( $\beta=.116, p>.05$ ), 회복력( $\beta=-.119, p>.05$ ) 요인은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여성이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희망 요인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Table 3.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Middle-Aged Women on Psychological Burnou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t	Tolerance Limit
		B	Standard Deviation			
Psychological Burnout	Constant	3.851	.211		18.231***	
	Self-Efficacy	-.138	.164	-.210	-.844	.074
	Hope	-.325	.119	-.475	-2.722**	.150
	Optimism	.077	.124	.116	.621	.132
	Resilience	-.088	.145	-.119	-.606	.119

\*\*  $p<.01$ , \*\*\*  $p<.001$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이 지각한 마음 챙김과 긍정심리자본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중년여성이 지각한 마음 챙김 요인은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여성이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희망 요인만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 낙관성, 회복력 요인은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여성이 지각한 마음 챙김, 긍정심리자본의 희망요인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년여성의 심리적 소진[5]에 대한 선행연구가 마음 챙김[7]과 긍정심리자본[10]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12,13]. 이는 은행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긍정심리자본의 낙관주의와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17]. 또한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활용할 때 개인의 발전과 성취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유사한 결과로 도출되었다[18].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이 심리적 소진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심리자본이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지금까지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심리상담의 효과와 사례연구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마음 챙김과 긍정심리자본에 따른 심리적 소진 분석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에서 살펴본 연구는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방법의 한계가 있으며,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본 지역 확대와 비교 집단 간 연구로 폭넓고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긍정적인 심리자본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연구로 시스템 형성에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 된다. 향후 중년여성의 심리적 소진을 해결하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안의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References

- [1] H. K. Cho, *The effects of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psychological counseling education of middle-aged women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family strengths*, Ph.D dissertation,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Seoul, Korea, pp.107-115, 2019.
- [2] H. O. Park, *A Qualitative Study on Transformative Learning of Middle-aged Women through Divorce Experience*,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pp.17-21, 2016.
- [3] Y. S. Cho, *The Effects of Clay Therapy Program Using Ceramic Works on Psychological Transformation of Middle-aged Wome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pp.8-9, 2016.
- [4] Y. E. Noh., & H. Y. Kwon "The Effects of Family Health and Stress Coping Behavior on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Family Health Levels of Middle-aged Women", *educational and cultural research*, Vol.25, No.2, pp.399-414, 2019. DOI: <https://doi.org/10.24159/joec.2019.25.2.399>
- [5] Y. H. Jeong,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Teacher Burnout Inventory(TBI)*, Ph.D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pp.135-139, 2016.
- [6] S. H. PARK, *Influence of Occupational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Counselors Burnout*,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pp.34-39, 2001.
- [7] M. J. Kim, *Development of Scale about Novice Therapists' Difficulty Experienced in Counseling*,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pp.26-30, 2006.
- [8] H. S. Lee, *The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Burnout of Novice Counselor: The Mediation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p.35-40, 2011.
- [9] J. H. Kim, *The effect of mindfulness on emotional solidarity and place attachment in festival participation*,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Leisure and Tourism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pp.94-101, 2017.
- [10] I. H. Baek, *The relationship between novice counselor's GRIT and burnout : the mediation effects of mindfulnes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pp.44-47, 2018.
- [11] T. O. Park,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Job Performance : The Mediating Effect of Innovative Behavior and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pp.80-81, 2020.
- [12] M. Abbas, U. Raja, "Impa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Innovative Performance and Job Stress", *Canadian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s*, Vol.32, No.2, pp.128-138, 2015. DOI: <https://doi.org/10.1002/cjas.1314>
- [13] H. Y. kim, *The Effects of Physical Therapist' Empathy ability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Job atisfaction*, Ph.D dissertation,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Seoul, Korea., Vol.22, No.3, pp.76-82,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3.316>
- [14] J. E. Shim, *Counselor's Mindfulness, Empathy,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Ph.D

- dissert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p.27-29, 2008.
- [15] B. J. Kim, *The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o the Job Satisfaction of Child Care Teachers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xhaustion*,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Woosuk University, pp.41-44, 2018.
- [16] G. S. Kim, *The impact of Counseloís Self-reflection on the Psychological Burnout*,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p.55-56, 2013.
- [17] M. Park, *Impact of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intrusion*,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business school, Seoul, Korea, pp.57-58, 2013.
- [18] M. H. Park, "The Relationship of Servant Leadership, Psychology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in Flight Attend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Vol.32, No.3, pp.17-36, 2017.  
DOI: <http://dx.doi.org/10.21719/IJTR.32.3.2>
- 

엄 주 영(Ju-Yeong Eom)

[준회원]



- 2019년 9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중)

<관심분야>  
융합컨텐츠

---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데이터베이스, 문화콘텐츠, 교육